눈사랑 한길

한길안과병원

스마트폰으로 한길안과병원을 만나세요.

2014 VOL. 47
SEP/OCT

2014년 (통권47호)
발행인·정규형 / 편집인·조범진 / 발행·기획실 /
등록번호·인천바01043 / 디자인·(주)꽃을담다(02.325.964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5(부평동) 한길안과병원
Tel_032.503.3322 Fax_032.503.0801





산들산들 가을 바람 솔솔 불어오면~ 눈을 들여다 봅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완연한 가을 날씨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청명하고 쾌청한 하늘과 기분 좋게 불어오는 바람, 산뜻하고 포근한 햇살이 가을 냄새를 폴폴 풍깁니다. 유난히 좋은 날들에 절로 엉덩이가 들썩여지지 않나요? 도시락을 싸 들고 근처 공원으로 나서 보세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가을 피크닉의 낭만과 여유를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만 말고 가족, 친구, 연인 등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일부러라도 만들고 투자하세요. 지금의 '나'를 행복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나'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과 함께하며 서로의 눈도 들여다봐주세요. 우리 눈에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담겨있지요. 만물을 보는 창인 동시에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감정을 교류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던 헬렌켈러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아름다운 가을날을 보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소중한 눈을 지킬 수 있도록 눈 건강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서로를 바라보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서로의 눈 건강도 살피며 유쾌한 가을날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을엔 주의하세요

▶ 환절기 눈 감기 '알레르기 결막염'

바람이 많이 불면서 바람을 타고 떠다니는 이물질이 신체 중 가장 민감한 눈에 접촉해 알레르기 결막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눈을 감싸고 있는 결막에 염증이 생겨 가려움, 충혈, 통증 등이 나타납니다. 손으로 눈을 만지거나 비비는 것을 삼가고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합니다. 통증이 계속되거나 눈 주위가 심하게 부어 오르면 안과를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 '악화되기 쉬운 안구건조증'

아침저녁의 일교차가 크고 건조해지는 날씨 탓에 안구건조증이 있는 사람은 이물감, 피로감, 통증, 두통 등의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의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눈이 피로해지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인공눈물을 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여전히 강한 자외선'

지난 여름 뜨겁던 햇살을 생각하면 이제 안심해도 될 것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가을 자외선 또한 여전히 강렬합니다. 여기에 잦아진 야외활동 탓에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은 오히려 늘어나기 쉽습니다. 자외선은 눈 건강에 백해무익합니다. 외출할 때는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해 눈에 들어오는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길안과병원은 정부의 까다로운 2번의 검증을 2번 다 통과한 명품 안과전문병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안과전문병원

'전문병원'이란 특정 진료과목 및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병원입니다.

2011.11.01 - 2014.10.31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안과전문병원 SPECIALTY HOSPITAL OF KOREA 전문병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병원

'의료기관 인증'이란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 의료의 질 등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엄격하게 평가해,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을 주는 제도입니다.

HEALTHCARE QUALITY PATIENT SAFETY 인증 의료기관 2011.06~2015.06 보건복지부

NEWS
HANGILEYE

제17회 명사초청강연

“보이지 않는 사물의 마음을 읽어라 “



한길안과병원이 황인원 문학경영연구원장과 함께 시를 이야기합니다





시인이자 국내 최고의 시 해설가로 알려진 문학경영연구원 황인원 원장이 한길안과병원을 찾았습니다. 바로 한길안과병원이 지난 8월 21일 병원 10층 한길홀에서 개최한 명사초청강연에서 유머와 해학이 넘치는 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였는데요. 강연에는 인천시민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번 강연은 황인원 원장을 명사로 초청, 시를 통해 보이지 않는 사물의 마음을 읽는 법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인생의 새로운 재미를 얻고 색다른 관점과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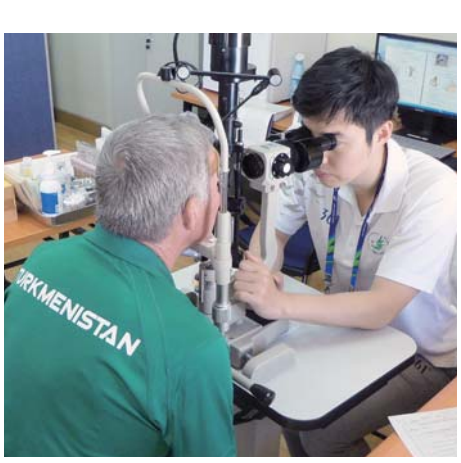
강연 현장에서 만난 황인원 원장은 ‘시’와 잘 어울리는 매우 유쾌하고 낭만적인 분이었습니다. 황인원 원장은 ‘실용적인 시 읽기’를 통해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문학적 상상력이 창조적 생각을 찾아내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전파하고 시를 통한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를 더 많이 읽고 시를 통해 더 의미 있는 생각을 얻을 수 있도록 시로써 대중과 소통해 온 ‘시 이야기꾼’입니다.
이 날 강연에서 황인원 원장은 ‘보이지 않는 사물의 마음을 읽어라’를 주제로 사물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관점 달리하기와 의인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시는 어렵다는 기존의 인식을 깨고 쉬운 시 창작법을 소개해 참석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함께 시를 낭독해보고 자유롭게 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며 적극적으로 강연에 참여하는 참석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연 틈틈이 흘러나오는 시민 여러분의 웃음소리에 한길안과병원의 마음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참석한 분들께 작은 즐거움을 드리고자 펜션 숙박권, 신간 베스트셀러, 우산세트 등 선물을 준비해 경품 추첨 이벤트도 마련했는데요. 이 날 강연의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았기를 기대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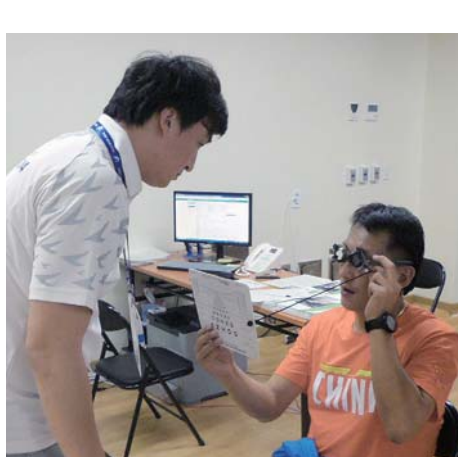
한길안과병원은 인천시민을 위한 지속적인 지역 문화강좌 양성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무료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명사초청강연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번이 17번째로 열린 강연입니다. 이번 강연을 계기로 시를 쉽게 이해하고 일상의 또 다른 재밋거리로 시를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와 어울리는 이 가을, 감성을 적셔주는 시 한 편 찾아 읊으며 시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정병원
| 선수촌 본부 병원 파견 |

“함께하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한길안과병원이 2014년 9월19일부터 10월4일(16일간)까지 45개국 선수단이 참여하는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촌 병원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지정병원으로 선정된 우리 병원은 대회기간 동안 의료진 10여명을 파견, 선수촌에 상주하며 대회 관계자 및 관람객들의 안과 진료를 전담하였습니다. 45억 아시아인을 위한 스포츠 축제의 현장에서 선수들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 제 기량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안과 의료지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역대 최대규모인 1만 4,500명의 선수단이 36개 종목에서 경합을 벌인 이번 대회에 선수촌 병원으로 참여하며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했다는데 자긍심을 느낍니다.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이 세계적인 도시로서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수준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수술실 리뉴얼 오픈



지난 9월 우리 병원은 병원 5층에 있는 수술실을 리모델링해 확장 오픈했습니다. 수술 환자의 신속한 이동을 돕고 환자가 편히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수술실 전체 공간을 넓혀 확장, 기존과 달리 5층 전체가 수술실로 사용됩니다. 수술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환경으로 수술실 내부환경을 개선하고 환자 안전과 편의성을 최우선 고려하여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고자 이번 시설확장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더욱 안전한 수술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언론에 비친 한길안과병원



CJ 헬로비전
[리더의 품격]

21세기 새로운 리더의 모습을 찾아보는 CJ헬로비전 ‘리더의 품격’ 프로그램에 우리 병원 조범진 병원장이 출연하였습니다. “인천 부평에서 만난 오늘의 리더”, “백내장과 각막수술의 국내 최고 권위자”, “안과의사라 행복한 섬기는 리더”의 모습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조범진 병원장 출연 / 2014. 09. 09

● 한길's 안과 Advice!

어린이 시력검진은

늦어도 만 5세 이전에 !

어린이 눈 질환은 얼마나 빨리 진단하고 치료하느냐에 따라 평생의 눈 건강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만 3세부터는 안과 검진을 시작해야 합니다.

6~7세까지 눈 기능이 대부분 발달하므로 약시의 조기 발견이 중요하며, 약시를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시력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시를 조기에 발견하려면 되도록 빨리, 늦어도 만5세 이전에 시력 검사를 받습니다.

약시란 안경을 써도 시력이 정상으로 나오지 않는 것으로, 어릴 때부터 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해 약화된 시력 상태를 말합니다. 약시는 어린이 100명 중 4명 정도로 많이 발생하지만 영유아기때 치료받으면 교정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눈을 위한 원스톱 토털케어



한길안과병원만의 특별함

- ◆ 5개 전문센터 종일 외래 진료 가동
- ◆ 전문센터 간 빠른 협진으로 안과 전 분야 통합진료

" 중복 안과 질환을 단 하루에! "

안과 모든 질환을 단 하루에 진료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실력파 의료진의 눈 질환 완벽 케어 "

대학병원에 견줄 만큼 우수한 23명의 의료진이 안과 전 분야 특화 진료를 제공합니다.

" 믿고 안전하게 수술받을 수 있는 병원 "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 등에 대해 그 우수성을 인정했습니다.

" 고가의 다양한 첨단 의료장비 "

220여 개의 전문 안과장비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료합니다.

" 멀리 해외에까지 입소문 난 병원 "

국제적 수준에 걸맞은 의료서비스로 세계와 경쟁합니다.

_ 연간 외국인 진료건수 : 462건 (2012년)

365일 눈 건강을 생각합니다.

WWW.HANGILEYE.CO.KR

진료 안내

대표전화 _ 1577-7117
기타안내 _ 032) 503-3322
라식센터 _ 032) 529-1001
평 일 _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토 요 일 _ 오전 9시 ~ 오후 3시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진합니다.

※ 점심시간(12:30~13:30)을 피해서 오시면 진료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정병원
Designated Hospital

17th Asian Games
INCHEON 2014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한길안과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